

때론 따끔하게 때론 깊은 애정으로...
조선 최고 지식인의 눈높이 교육법



다산의 제자 교육법

정민 지음

다산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지식 경영자이자 위대한 스승이다. 제자 눈높이에서 상황에 맞게 건넨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해 귀한 지혜로 다가온다.

다산은 지식과 제자, 가까운 벗에게 각자의 신분과 성향, 상황에 따라 명심해야 할 가르침을 내렸다. 일명 증언(諭言)은 다산의 사상과 학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 자료인 동시에, 현대인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곱씹어야 할 지침서다.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채롭게 펼쳐온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이번에는 '다산의 제자 교육법'을 펴냈다.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산의 증언을 발굴하고 연구해온 정민 교수가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쉬운 글로 풀어 쓴 것이다. 공상과 공상과 때로는 엄격한 스승 다산의 생생한 목소리는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위대한 교육 정신을 들려준다.

다산의 증언은 강력하고 위력적이었다. 체력이 작고 왜소하여 자신감이 없던 윤종진에게 들려준 가르침은 대표적이다. 윤종진은 외모는 보잘 것 없었지만 큰일을 한 작은 거인들을 꿈으며 독려한 다산의 가르침을 받고 분발할 수 있었다.

“너는 행여 주눅 들지 말고 남보다 열 배 더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천근의 무게를 더 갖들여야지. ‘순(澁)’이란 글자를 잊지 말거라. 도답과 두텁게 한결 같아야 한다. 사람이 진국이란 소리를 들어야지 경박하던 말을 들어야 쓰겠나? 너와 같은 조건에서도 큰 뜻을 세워 우뚝한 자취를 남긴 선인들을 마음에 새겨두거라.”

또한 다산은 정수침에게 경학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표준에 맞춰 내 마음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다산의 증언은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산의 글에는 그의 인품은 물론 인간에 대한 배려, 백성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책은 현대인들이 일상을 살며 읽고 새겨야 할 글을 뽑아 주제별로 구성했다. 증언은 제자별로 그때그때 건넨 것인데 한 증언 절에도 여러 주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사물에서 읽는 의미, 산거 생활과 이상 주거, 학문을 해야 하는 까닭, 공부법, 공직자의 마음가짐 등 모두 다산 가지 주제로 갈래를 지었다.

다산의 제자 교육법 중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루리 천이나 종이에 건넨 것은 제자의 성향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아 거기에 맞춰 가르침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휴머니스트·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매화 그림의 역사 새로 쓴 조희룡의 예술세계

우봉 조희룡

이선옥 지음



매화 화가이자 '19세기 묵장(墨場)의 영수(領袖)'라 불린 이가 있다. 묵장의 영수란 “먹을 다루는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바로 우봉(文峰) 조희룡(1789~1866)이다. 그는 조선 회화의 근대를 연, 자유와 격정의 예술 세계를 선보였던 선각자였다. 특히 매화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매화도 전통은 매우 오래됐는데, 시대와 화가에 따라 화풍이 달랐다. 조희룡의 매화도는 당시만 해도 그려지지 않았던 붉은 흥매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뛰어난 문장가이자 전문예술가의 삶을 살다간 우봉(文峰) 조희룡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다룬 책이 나왔다.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에서 호남 서화를 연구하는 이선옥 박사가 펴낸 '우봉 조희룡'은 파격적인 매화 그림으로 당대를 풍미했던 우봉에 초점을 맞춘다.

책의 저자 이선옥은 매화 그림 전문가다. 지난 2004년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1년에는 '사군자,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신안 입자도에 유배돼 호남 지역에 머물며 지역 예술에 집중했던 조희룡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본다.



조희룡, '매화서옥도' 부분 중이에 수묵담채.

조희룡은 19세기라는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인 예술가의 모범을 창시한 선구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는 19세기 중인들의 전기집 '호산외기(湖山外記)'를 최초로 엮어낸 만큼 역사적식과 정체성이 남달랐다. 또한 다수의 시와 문장을 통해 내면세계를 가감없이 표현했으며 '수예론(手藝論)' 등 기존에 없던 독보적인 서화관을 선보이기도 했다.

조선의 19세기는 격동의 시대였다. 문에 부흥기인 18

세기와 일제 강점기인 20세기에 걸친 시기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바람이 거셴다. 조선의 근간인 신분제의 동요와 맞물려 청의 학문과 서양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다.

한마디로 과도기나 다름없었다. 조희룡은 사대부 가문 출신의 문인화가이면서 신분이 낮은 중인계층의 여향인(閏巷人·벼슬을 하지 않는 일반 백성)의 이중성을 지녔다. 내면에는 신분적 한계와 60대 초반에 겪은 유배의 울분이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희룡은 추사 김정희에게 서화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희의 복심으로 억울한 유배까지 다녀왔지만, 말년에는 김정희의 화풍과는 대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예술을 선보였다. 추사의 제자이면서 당대의 쌍벽으로 우뚝 선, '청출어람'이었던 셈이다.

그의 작품에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지빛 흥매화를 그리며 도교의 불사약을 뜻하는 단약(丹藥)과 매화 한 송이 한 송이를 부처의 현신이라 여긴 데서 알 수 있다.

말년의 조희룡은 남마다 향을 피우고 '유마경'을 외우며 마치 불가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지냈다. 그의 절친했던 벗 나기(羅岐)는 노년의 그를 “늙을수록 더욱 긴장한 조단로(趙丹老)는 마치 학이 가을 구름을 타고 훨훨 나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유배라는 굴곡을 겪었지만, 그의 자유로운 사고와 예술의 폭을 제한하지는 못 했다. 78세까지 장수하며 서화를 즐기며 신선처럼 살았다. “모든 잡념을 끊고 득실을 한결같이 보고 영애와 모욕을 잊은 채, 여유 있고 한가롭게 애오라지 한 생애를 마쳤다.”

한편 조희룡은 그림으로 유명하기 이전에는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시와 편지, 산문, 화제(畫題) 등을 엮은 문집이 여러 권 전한다. 그 가운데 '호산외기'는 중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조희룡의 역사적식의 산물로 평가받는다.

〈돌베개·3만 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크리스마스 앞두고 와이더 교수는 살해 당하는데...



겨울의 책

E.O. 키로비치 지음
이윤진 옮김

프린스턴 영문과 모범생 리처드가 와이더 교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다. 와이더 교수와 리처드 사이에는 또래 여대생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는 매력적인 심리학도 로라가 있다. 리처드는 지도 교수가 자 인생의 멘토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와이더 교수를 남몰래 질투하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새벽 교수가 그의 저택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용의 선상에 오른다. 그리고 30년 후 뉴욕의

출판 에이전시에 리처드가 보낸 한 편지의 원고가 도착하며 오래된 미스터리의 벽을 허물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난다.

민음사 외국문학 브랜드 M이 스티리틀러 독자들을 열광하게 할 신예 작가를 소개했다. '국제 도시전의 스타'가 된 루마니아 작가 E.O. 키로비치가 주인공이다. 저자는 1987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미국 심리학계 거장 와이더 교수가 살해당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세밀한 심리 묘사로 형상화한다.

소설이 영국에서 출간됐을 때 '가디언'은 '기억이라는 단순한 소재로 만들어낸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물'이라 평했고, 그 해 38개국에 판권이 팔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심리 스릴러로 떠올랐다.

〈민음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물복지·노동자 권리 짓밟은 육류산업 속살 파헤쳐



육식의 딜레마

케이티 키퍼 지음
강경이 옮김

오랫동안 인류는 사냥이나 육축의 방식으로 소나 돼지, 닭을 비롯한 동물로부터 단백질을 얻었다. 매우 적은 규모의 시스템으로 고기를 공급 받았다. 그러던 흐름은 20세기 초에 달라졌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사료와 종자, 비료 공급상으로 일하던 이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닭 수백 마리를 실내에서 키우면서부터다. 이른바 '공장식 축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 수십 년간

덩치를 키운 육류 생산기업은 대규모 농장 외에 도축·가공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양의 육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외식산업 전문가인 케이티 키퍼의 '육식의 딜레마'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육류산업의 속살을 파헤친다. 저자는 육류산업의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육류산업은 최단 시간에 최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동물복지, 환경, 노동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산시스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육류산업을 점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루아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문학·음악 등 예술작품 빌려 우리 역사 알기



명작으로 읽는 동양의 한국사

이동원 지음

이 책은 '명작'이라 불릴 만한 인류의 문화유산과 같은 그림·문학·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빌려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교양 역사 서적이다.

'대화의 연금술', '통하는 대화법', '소비 트렌드' 등을 펴낸 저자 이동원은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통일신라 말기와 후삼국 통일까지 혼란한 시대상황을 겪은 민중의 삶을 파악한다. 19세기 말 거센 변화의 흐름

를 막고 버틴 조선 정부를 파악할 때는 그와 대비되는 서구사회의 변화를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에서 찾기도 한다.

삼국시대 때 부여의 후손인 형제국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싸움에 저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펄 벅의 '대지'라는 현미경으로 대립의 속살을 분석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지'의 주인공으로 한평생 토지를 늘리기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노부 왕릉은 영토를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 고구려와 백제로 치환해볼 수 있다.

역사와 명작을 넘나드는 통섭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역사와 명작을 마주하는 인식의 지평이 한층 넓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

〈북오션·1만60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